

새정치 간신히 2석... 끝없는 연패사슬

재보선 24곳 중 새누리 15곳·무소속 7곳서 당선 광역, 3대 6서 7대 2 역전... 전남, 함평 1곳만 승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4명을 뽑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6명을 당선시키며 모두 1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함평·인천 서구(광역의원) 2곳뿐이었다.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됐다.

이로써 새정치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4·29 재보궐선거까지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한 채 3연패의 늪에 빠지게 됐다.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평호 당선자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정치는 백두현 당 후보자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고성군수 선거 투표율이 50.7%를 기록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승리는 여당에 돌아갔다.

9개 지역에서 열린 광역의원 재보선은 새누리 7석, 새정치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애초 의석 수는 새누리 3석, 새정치 6석이였다. 새정치가 새누리에게 4석을 빼앗긴 셈이다.

14개 지역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에선 새누리 7석, 새정치 0석, 무소속 7석. 애초

의석수는 새누리 8석·새정치 2석·무소속 4석이였다. 새누리과 새정치가 각각 1석·2석을 잃은 것이다.

전남에선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2곳 등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다. 이중 새정치 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은 함평(광역의원·제2선거구)이 유일하다. 당선자는 3369표(47.25%)를 얻은 새정치 소속 정정희 후보다.

시·군의원 선거가 치러진 목포 라선거구와 신안 나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목포에서는 무소속 이재용 후보가 2771표(38.33%)로, 신안에선 무소속 최승환 후보가 2026표(31.04%)로 최다 득표했다. 신안에선 새정치 후보가 3위에 그쳤고, 목표는 새정치 무공천 지역이었다.

이번 선거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재보선 결과로 인해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재보선 패배로 새정치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등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 참패 직후 새정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승리의 기억이 아득하다”,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10·28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0.1%를 기록했다.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최종 투표율(32.6%)보다 12.5%p 낮다. 이 같은 투표율은 2000년 재보선의 연 2회 실시 정례화 이후 최저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참패 책임져라” 새정치 또 내분

“총선 이대로 힘들다” 확산 박지원 “결단 내려야 할 때” 주류-비주류 갈등 재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0·28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연패’의 사슬을 끊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류 진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되지 않은 ‘미니선거’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9일 트위터 글을 통해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거는 이겨야 한다. 수도권 강세 지역에서 모조리 패배한 이번 선거 결과는 또 한번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를 향해 “작은 선거라고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적당하게 또 남기면 다음 총선에서도 또 적당하게 패배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권교체도 물 건너간다”며 “문 대표님! 결단을 하십시오. 아직도 문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대권 가도의 길이 열려있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재보선 참패로 역사교과서 국면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 등 내년 총선 공천 수준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누적돼온 불만 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호남 민심이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이 어



野 비주류 ‘혁신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주최로 열린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병호 의원, 안 전 공동대표, 김한길 전 공동대표.

/연합뉴스

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정국의 한 가운데서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민생과 경제를 대어 투쟁의 출구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당내 주류 진영에서는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내세우며 보궐선거 참패 의미를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지도 않은 재보선 결과로 지도부를 흔들어댄다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우려

된다는 것이다.

비주류 성향의 전남지역 모 의원은 “수도권 호남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년 총선 패배를 암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野 신당파, 창당 지지개

신민당 발기인대회... 천정배·박주선 내달 창준위 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한동안 잠잠했던 야권 신당 추진세력들이 서서히 지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달 15일 신민당 창당을 선언했던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민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날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박 전 지사는 “10·28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석을 얻었다”며 “국민이 24개 지역에서 보여준 명령은 신당을 만들라는 것이다. 어제처럼 국민은 이미 수차례 새정치연합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 창당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전당대회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준위 체제로 전환한다.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는 지난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기인대회에서 ‘복지국가당’이라는 정당 명칭을 정하고, 창당의 법적 준비체인 중앙당 창준위를 출범시킨다”며 “향후 창준위는 당원 모집, 5개 광역·도당 창당 등의 공식 활동을 할 것이며, 11월말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지난 21일 신당 추진을 위한 자문 교수단과 1차 회의를 하는 등 창당 움직임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패배의 충격은 메가톤급”이라며 “지난 21일 제안했던 ‘11·10 원탁회의’를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구상과 물밑 논의 수준에 그쳤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 전 단계 기구다. 천 의원은 지난달 20일 창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12월까지 창준위를 구성해 내년 1월 중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내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때문에 일정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박혜자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확보

석면 교체 등 학교 환경 개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8억800만원과 18억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각각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부금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구초등학교의 석면텍스 교체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사업이 많지만, 이번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석면텍스 교체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유해물질인 학교현장의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확보한 교부금은 서광초교의 학교안전시설물 보수(2억900만원), 유촌초교의 석면텍스 교체(8억2000만원), 상무고교의 LED 시설 및 석면텍스



김동철 의원 박혜자 의원

교체(7억9200만원) 등 광주 서구지역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유해물질인 석면텍스의 교체를 꾸준히 문제 제기하면서 석면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학교 안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